

세아베스틸 _ 군산상공회의소 요청 자료

세아그룹의 창업주인 (故)이종덕 회장(해암)은 21세에 일본인 회사인 미나도금고상회에 입사하며 철과의 인연을 맺었다. 금고 공장 책임자로 일하며 사업에 눈을 뜬 그는 1954년 부산에서 '해덕철강상사'를 운영하며 철강재를 수입, 판매했다. 1960년 10월 '국가 기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세아그룹의 모태인 '부산철관공업(현 세아제강지주)'을 설립하며 강관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감만동에 공장을 지으면서 '포말기업이 아닌 초석기업을 만든다'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했고,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재투자하며 사업 성장에 혼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부산철관공업은 강관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부상했고, 나아가 국내 최대 강관 공장인 포항공장을 건설하며 오늘날 세아그룹의 결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1974년부터는 장남인 故 이운형 회장이 경영을 이어받았다. 그는 그룹 사명을 부산과 이프에서 '세아'로 바꾸고 기업이념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으로 재정했다. 국내 강관업계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선제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으며,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과 창원강업(현 세아특수강) 등 연이은 인수를 통해 그룹 매출을 300배 가까이 성장시켰다. 특히, 그가 가장 큰 의지를 보인 것은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여겨졌던 기아특수강 인수였다. 특수강 사업이 국가 기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과 철강 사업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2003년 기아특수강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후, '기본과 원칙', '감사와 겸허'를 굳건히 지키는 경영을 통해 만년 적자 기업을 불과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故 이운형 회장이 2013년 별세한 이후에는 동생인 이순형 회장이

세아그룹을 이끌고 있다.

세아베스틸의 역사는 1955년 설립된 '대한중공업'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기아특수강'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특수강 전문 기업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했다. 당시 서울에 있던 공장은 늘어나는 수요와 첨단 설비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터전을 모색했고,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인 군산을 새로운 성장 기지로 낙점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군산에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91년부터 9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18만평 부지에 연산 72만 톤 규모의 최첨단 특수강 공장을 건설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으며, 1993년에는 본사까지 군산으로 이전하며 명실상부한 군산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1997년, 7년간의 노력 끝에 군산 특수강 공장이 마침내 종합 준공되며 세계적인 특수강 전문업체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최신 설비를 갖춘 군산공장은 자동차, 기계 등 국가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특수강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기지로 자리 잡았다. 세아베스틸(당시 기아특수강)은 성장 가도 속에서 맞닥뜨린 모기업의 부도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003년 12월 세아그룹에 인수되었으며, 2004년 1월 '세아베스틸'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세아베스틸의 이름인 'Besteel'은 'Best'와 'Steel'의 합성어로 최고의 특수강 회사로 발돋움하는 설립 의지와 지속 가능한 철강 기업을 향한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함께 담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출범 첫 해인 2004년 '최고의 경쟁력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경영 방침 아래 최대 생산·판매 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강, 압연, 단조 등 각 부문에서 월 생산 신기록을 이어가며 550억 원의 경상 이익을 실현했다. 이듬

해인 2005년에는 그룹 내 단일 기업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전년 대비 30% 증가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이후에도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 되었다. 이후에도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었다. 2006년에는 R&D센터를 준공하여 새로운 합금 개발과 생산 공정 최적화 등 연구 개발을 확대했으며, 2008년 군산 공장 생산 라인 증설과 2013년 창녕 신규 공장 준공을 통해 특수강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현재는 29만평 부지에 210만톤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특수강 시장의 확고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세아베스틸은 국내 특수강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의 기술 표준을 선도해왔다. 특히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 샤프트, 변속기 기어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 소재를 오랜 기간 공급해 왔으며, ISO9001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발판 삼아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을 추진했다. 첫째, 내수 시장을 넘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둘째, 기존 자동차용 특수강을 넘어 대형 단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선박용 엔진 부품과 산업기계, 발전 설비 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 동력을 다변화했다.



세아베스틸은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대표적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2년부터 국제적인 철강 공급 과잉 당시, 전방 산업의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면 돌파했다. 비상 경영 체제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위한 기술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며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 위기에 대응해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2015년 세아창원특수강(구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스테인리스강까지 넓혔고, 2020년에는 세아항공방산소재(구 알코닉코리아)를 인수하며 비철강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기업 체질을 더욱 강화했다.

세아베스틸은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거듭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사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윤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주사인 세아홀딩스가 세계적인 기업윤리 평가기관인 에티스피어(Ethisphere)로 부터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에 2년 연속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세아베스틸의 투명한 경영 활동을 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세아베스틸은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특수강 개발하고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폐기물이던 슬래그를 고기능 시멘트 소재로 재활용하는 등 저탄소 순환 경제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미래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6년 미국 판매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접목하여 효율성과 안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그린에너지, 방산, 원자력 등 신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하고 저장하는 용기(CASK)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저온·고압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합금 및 저장용기 개발하며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군산에서 시작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글로벌 특수강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